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작성자

최연정(송호고등학교), 김은진(시흥매화고등학교), 김지은(배곧중학교), 김규리(마장고등학교)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이경덕 지음



■ 주제어 #신화

■ 분류 청소년 > 인문사회

■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권장도서

도서 소개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책 등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하여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화를 과거의 이야기, 즉 아주 먼 옛날의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재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저 즐거운 이야기로요. 하지만 이 책은 신화가 ‘상징’을 통해 시대를 가리지 않는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화가 나오는 상관없는 옛날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수없이 접하는 영화, 그림, 절, 달력, 하늘, 심지어 집까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신화 속 상징들. 나의 삶에서 그려 낼 수 있는 ‘나의 신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작에서 끝으로,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연결되는 끝없는 신화 이야기 속에서, 나의 매일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학습 목표

[10국02-01]

읽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국0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준비	신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1차시
독서	신화 - 영웅의 여정	2차시
	I. 영화로 만나는 신화를 읽고	3차시
	II. 그림으로 만나는 신화를 읽고	4차시
	III. 절에서 만나는 신화를 읽고	5차시
	IV. 길에서 만나는 신화를 읽고 (1)	6차시
	V. 길에서 만나는 신화를 읽고 (2)	7~8차시
독서 후	신화와 나를 연관 짓기	9차시
	끝과 새로운 시작의 나의 하루 일기 쓰기	10차시

1. 다음 대화들 중 신화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너 그 소식 들었니? 어제 미미가 도도의 비밀을 알아버렸대!

정말?!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구나!

라라야, 더 이상 야식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니? 또 먹네!

하하, 결심은 ㉢기억의 노예에 불과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학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아!

너 ㉡나르시시즘이 엄청나구나?!

파파야, 너의 롤 모델은 누구니?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은 나의 롤 모델이자 훌륭한 ㉣멘토이셔.

▷ ㉠~㉣ 중 신화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단어를 찾고,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 우리가 자주 접하는 브랜드 중, 신화와 관련이 있는 브랜드명을 찾아보고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 내가 찾은 브랜드명:

- 어떤 신화와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께 1번은 자유롭게 짝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의 '[차클마스터클래스] 모든 것은 신화 안에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최고의 브랜드가 된 이유' 영상의 5분 22초부터 문제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 속에도 신화적 요소가 많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는 활동임을 이야기해 주세요.

1. 전 세계의 신화를 연구하던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은 영웅 신화에서 공통된 이야기 구조를 발견합니다.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리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남 - 부름 - 모험 - 역경 - 귀환

세상에 태어나 소명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영웅은
새로운 세계에서 위협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큰 시련을 마주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 낸 영웅은 보상을 받고 귀환하여
세상을 구합니다.

- 출처 : 지식채널e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 이야기는 어떻게 탄생할까?' -

우리가 책에서 만난 신화 중 한 편을 골라 '영웅의 여정'을 찾아 써 봅시다.

태어남
부름
모험
역경
귀환

선생님께 학생들에게 제시된 지식채널e 영상을 보고, 영웅의 여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1장 '영화로 만나는 신화'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매트릭스>, <아마겟돈> 등 여러 영화를 활용하여 신화적 상징을 찾아갑니다. 그중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모험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음 부분을 다시 읽고, 내가 거쳐 온 통과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 혹은 성장을 이뤘는지 성찰하여 작성해 봅시다.

반지 원정대가 괴물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을 구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괴물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백색의 간달프로 변한다. 이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간달프가 위험을 통과하고 죽음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른바 통과례를 치른 것이다. 통과례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리킨다. ... 한편 개인적인 통과례도 있다. 큰 깨달음을 얻거나 영웅처럼 부름을 받는 경우가 그렇다. 간달프가 회색의 마법사에서 백색의 마법사로 변하는 장면은, 훗날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아라곤의 행로를 앞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간달프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렇듯 힘든 통과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들의 삶은 성숙해지고 강해진다.

1장 영화로 만나는 신화 pp.29-30

▷ 나의 삶을 성찰하고, 내가 거쳐 온 통과례를 정리해 봅시다.

사건	깨달은 점, 성장한 점
①	①
②	②
③	③
▷ 정리한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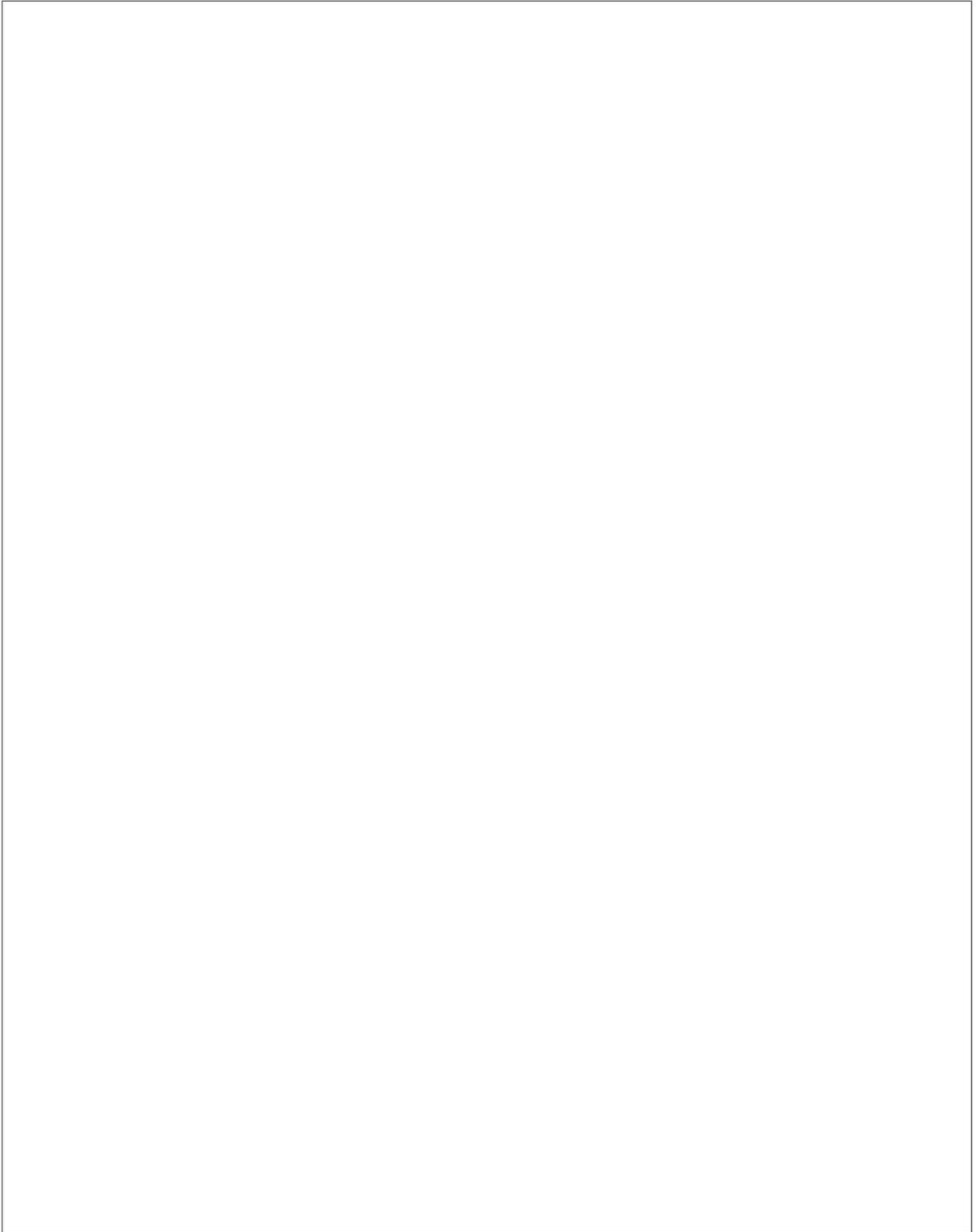
선생님께 책에서는 간달프의 일화로 통과례를 설명합니다. 죽음이라는 위기를 거쳐 성장한 것으로, 학생들이 통과례를 지나치게 거대한 사건으로만 집중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세요.

1. 신화 속 궁금한 이야기를 다음의 세 가지 질문 유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사실적 질문 : 하나의 정답이 있는 질문</p>	<p>1.</p> <p>2.</p> <p>3.</p> <p>4.</p> <p>5.</p>
<p style="text-align: center;">해석적 질문 : 작가가 쓴 내용에 근거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p>	<p>1.</p> <p>2.</p> <p>3.</p> <p>4.</p> <p>5.</p>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적 질문 독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답을 생각하는 질문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p>	<p>1.</p> <p>2.</p> <p>3.</p> <p>4.</p> <p>5.</p>

선생님께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은 소크라틱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질문 유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미국의 교육 철학자인 모티머 애들러(Mortimer Adler)입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대답한다면, 사실 또는 해석적 질문입니다. 한 가지 대답만 나온다면 사실적 질문이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면 해석적 질문입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면, 텍스트를 벗어난 대답이기에 평가적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질문이 있는 그림책 수업』, 케렌시아, 2022, 참고)

2. '비슈누의 화신, 나의 화신 _ 아바타'를 읽고 열 가지 화신 중 가장 인상적인 화신(아바타)을 그려 봅시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화신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선생님께 열 가지 화신 중 인상 깊은 화신 그려 보기를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미륵은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 미래에 이 세상에 올 부처입니다. 이러한 미륵의 역할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륵이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나요?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부분을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불교에서 인간의 삶은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 네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힘든 부분을 마음속에서 꺼내 표현해 보는 것이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법구경』에는 ‘겨자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오자 그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 오면 살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란 없죠. 이를 통해 여인은 죽음과 상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께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을 겪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통해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1. 아래의 글을 읽고 우리 집을 지키는 신들을 상상해 보고, 우리집의 성주신뿔이를 만들어 봅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록 생명이 없는 물건이라도 오래되면 스스로 힘을 가지게 된다고 믿었다. ...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집 안 곳곳에 신이 산다고 믿었다. 문에는 문신, 부엌에는 조왕신이 살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신이 산다고 생각했다. ... 또한 길을 나서면 장승과 솟대 등이 서 있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

우리나라에서 집의 신은 성주신이다. 그리고 성주신의 신화를 성주신뿔이라고 한다. '뿔이'라는 말은 그 신의 내력을 풀어 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뿔이는 신화와 같은 말이 된다.

4장 길에서 만나는 신화 pp.167-169

1) 우리 집을 지키는 신들을 상상해서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신들을 상상할 때 집의 구조, 자신이 자주 쓰는 물건, 집 주변의 길이나 조형물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장소	이름	역할	생김새
부엌			
화장실			
핸드폰			

2) 상상해 본 신들의 내력을 적어 '우리 집 성주신풀이'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께 신들의 성격, 특징, 신들 간의 관계, 나와 관계, 나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신들의 내력을 풀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7~8차시

V. 길에서 만나는 신화를 읽고 (2)

1.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를 찾아본 후 나의 별자리에 관해 알아보시다.

♈	양자리(Aries) : 3월 21일~4월 19일
♉	황소자리(Taurus) : 4월 20일~5월 20일
♊	쌍둥이자리(Gemini) : 5월 21일~6월 21일
♋	게자리(Cancer) : 6월 22일~7월 22일
♌	사자자리(Leo) : 7월 23일~8월 22일
♍	처녀자리(Virgo) : 8월 23일~9월 22일
♎	천칭자리(Libra) : 9월 23일~10월 23일
♏	전갈자리(Scorpius) : 10월 24일~11월 21일
♐	궁수자리(Sagittarius) : 11월 22일~12월 21일
♑	염소자리(Capricornus) : 12월 22일~1월 19일
♒	물병자리(Aquarius) : 1월 20일~2월 18일
♓	물고기자리(Pisces) : 2월 19일~3월 20일

1) 나의 생일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찾아 그려 본 후,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이야기)를 찾아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이야기)를 찾을 때는 관련 서적, 인터넷 검색,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2) '전갈자리가 된 마우이의 뉘싯바늘'(193쪽)을 읽고, 나의 별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께 세계 각지에 있는 별자리 신화 중 별자리의 생김새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 주세요. 나의 별자리 신화를 만들 때 별자리의 생김새와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

2-1) 나의 별자리를 창조해 그려 보고, 이러한 생김새로 별자리를 만든 이유를 적어 보자.

나의 별자리	이렇게 만든 이유

2-2) 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를 만들어 보자.

2.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별자리를 소개하며 질문과 답을 나누어 봅시다.

선생님께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나누고 답을 찾을 때 답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생각을 촉발시키고 확장, 심화시키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길러 줍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활용한 대화와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학습자의 배움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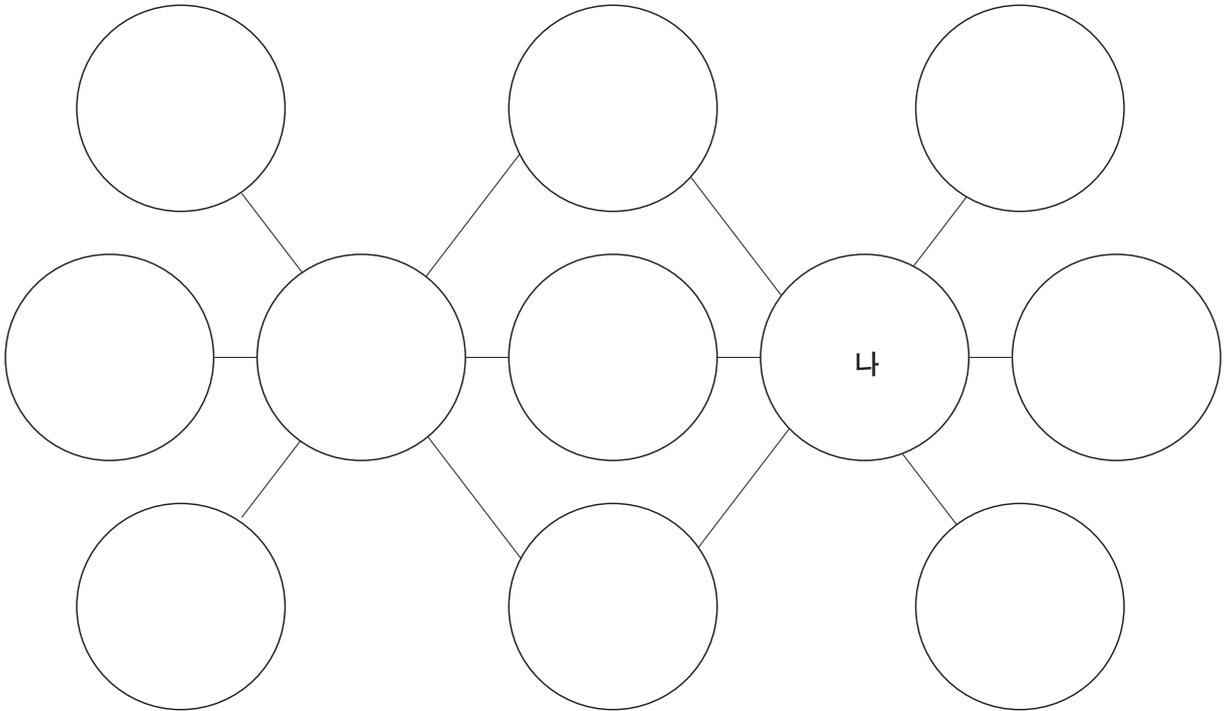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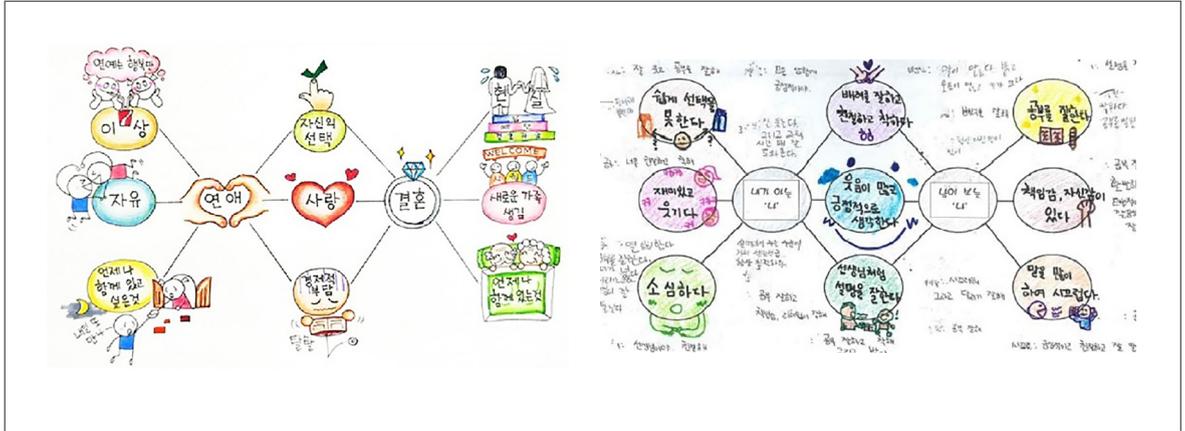
1) 다른 모둠원의 별자리를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적어 봅시다.

2)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 답을 함께 찾아 봅시다.

3) 모둠원들과 함께 논의한 질문과 답을 토대로 나의 별자리 신화를 수정하고 보완해 봅시다.

1. 신화 속 인물을 하나 정하고, 나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 비주얼 씩킹 더블 버블형 레이아웃 예시



2. 모둠원들과 함께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스 메이트 방법으로 대화해 봅시다.

주제: 신들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와 신들의 공통점은?
신과 달리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 신화 이야기는?

〈진행 방법〉

1. 모둠에서 주제를 결정합니다.
2.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봅시다.
: 모둠원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3. 각자의 의견을 활동지에 기록합니다.
: 3분 동안 대화하지 않고, 말로 표현했던 생각을 자신의 칸에 글로 정리해 봅시다.
4. 모둠 전체의 의견을 요약하여 적어 봅시다.
: 모둠원의 의견을 듣고, 적은 후에 다시 각자 적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통된 의견과 합의된 의견 등을 중앙의 칸에 적은 후 전체 앞에서 발표합니다.

- 다음을 읽고 고려하여 하루의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시작과 끝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새롭게 시작되는 매일입니다. 그 하루에서 버릴 것과 없애고 싶은 것, 그리고 새롭게 정화되고 목표로 하는 것과 그것을 위한 행동 등을 중심으로 오늘의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신화의 세계에서도 시작과 끝은 늘 반복된다. 이 때문에 신화의 시작은 창조 신화이면서 종말 신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말 신화는 끔찍한 재앙과 혼란을 보여 주지만, 한편으로 그 재앙과 혼란을 통해 정화되고 깨끗해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인류가 종말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이다.

1장 영화로 만나는 신화 pp.40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가장 먼저 잊는 것이 명사라고 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생활에서 명사가 가장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신화도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화는 굳어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화에서 정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신들의 이름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신들과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앞에서 영웅은 일반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 준다는 말입니다.

5장 일상에서 만나는 신화 pp.204-205